

여이발사의 발치

3만년전 크로마뇽인도 충치를 앓았다.

충치는 성행위를 너무 과하게 해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빨속으로 벌레가 들어가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충치의 치료중 기상천외한 것으로는 살아 있는 쥐의 머리통을 물어 뜯으면 낳는다고 하거나 당나귀와 키스하면 낳는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보름날 밤에 잠은 도마뱀 뼈가루를 이에 붙인채 벼락맞은 나무를 물어 뜯으면 충치가 없어진다고, 요즘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들이 많았다.

치과치료를 이발사들이 주로 행했던 시절엔 여자들도 치과외사로 활약했다.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